

강태선 포천시의원 알선수재 구속

석산개발 인허가 관련 수천만원 수뢰혐의 관련자 함께 조사 ... 지역사회 파장 클 듯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2일 공무원에게 부탁해 석산개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포천시의회 강태선 의원(사진)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4년 4월 석산개발업체 관계자 전 모씨로부터 포천 석산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외에도 석산개발과 관련해 오 모씨 등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포천지역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은 지난 2004년부터 마태사 주지인 전 모씨가 사활이전을 계획하면서 추

진했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석산개발 업자는 46만3천766㎡(시가 500억원 상당) 면적에서 채석하기로 하고 포천시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마을이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포천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인허가를 반려했다.
또 영종면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에 대해 오 모씨 등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포천지역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은 지난 2004년부터 마태사 주지인 전 모씨가 사활이전을 계획하면서 추

모 거사리 전 이장은 용역보고서에는 용역의 근본 목적인 '석산개발에 따른 우려되는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 전 이장은 '포천시가 발주한 환경영향검토 역시 채석장 허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7월에는 마태사 주지와 오 모씨 등이 석산개발을 반대한다며 박 전 이장을 사찰로 불러 폭행하고 강제로 석산개발 동의서에 날인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천시청 앞에

서 시위를 벌이는 등 석산개발을 적극 반대해 왔다. 주민들에 의하면 "시의원이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영종면 이장들을 찾아 다녔다"고 말하고 "이는 석산개발 업자와 밀착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업자는 지난 2007년 5월경 석산개발허가 신청서를 다시 접수했으며 포천시는 자연경관 훼손과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허가 반려가 아닌 불허가 처분을 단행했다. 이같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석산개발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㉔
도평리 농촌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

농림부로부터 3~5년간 58억원 사업비 지원

마을주민 직접 기획 ... 소득사업 등 연계 추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가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동면 도평리는 농림부로부터 앞으로 3~5년 동안 58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포천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평리는 5천600만2천735㎡의 면적에 4개 행정리, 481가구에 1천12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 특산물로는 이동막걸리와 이동갈비, 고로쇠수액, 자작나무 수액, 한방김치, 한방양초, 백운한우 등이다.
또 이 곳에서는 주민들이 기획한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축제, 산사랑산지기축제, 도평리 주회행사인 한방김치축제 등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업이며 관공서는 협력자로서 역할만 하게 된다.
이동면 도평리 주민들은 지난 3월5일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관련자 교육을 마치고 현재 한국농촌공사 농촌지역개발 및 환경, 농촌관광분야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4월과 8월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0월 주민공청회 실시, 12월 경기도 기본계획수립, 2008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을 착수한다.
도평리 주민들과 농촌공사는 오는 21일 이동면사무소에서 기본구상안 발표를 가진다.
기본구상안에 의하면 도리마을(도평리)은 이동막걸리와 이동갈비, 한방마을, 미약초 등 특색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 80%가 산림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 공간을 조성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켜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선정되는 마을에 70억원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이같은 목적에 따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일선 시군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역자치단체 심의와 농림부의 최종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은 농림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전국 77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리적 요건과 자원분포현황, 발전방향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2월16일 가장 적합한 이동면 도평리 등 36개 권역을 선정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비롯한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인공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같은 사업은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이같은 목적에 따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일선 시군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역자치단체 심의와 농림부의 최종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은 농림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전국 77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리적 요건과 자원분포현황, 발전방향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2월16일 가장 적합한 이동면 도평리 등 36개 권역을 선정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비롯한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인공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같은 사업은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평리 개발 테마를 살펴보면 ▶ 관광활성화(Sight-seeing)로 기존 축제 및 체험마을의 활성화로 농고류에의 재도약을 통한 미래농촌의 꿈을 키워가는 지역으로 발전 ▶자생약초 브랜드화 실현(High quality) 권역의 특색화를 꾀하고 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경쟁구조의 다양한 농촌체험 마을과의 차별화를 통한 비교우위 선정 ▶경관환상(Open space) 산과 계곡 등 다양하고 청정한 Open space를 보존하고 거주어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 ▶복지농촌조성(Welfare)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이끌어 선도적인 농촌문화를 정착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마을조성 등 4가지 S(관광)/H(소득)/O(경관)/W(복지) 등이다. 이같은 4가지 테마는 4계절을 SHOW가 있는 도리마을로 연계도로 설정한 것이며 궁극적인 발전목표는 관광과 소득, 경관, 복지 4계절 이어지는 살기 좋은 마을조성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청성초등학교 야구교실 특강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 회장 초청

청성초등학교(교장 임승출)는 6월19일 오후2시 운동장에서 4.5.6학년 120여명을 대상으로 야구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포천시야구협회 장승호 회장이 강사로 나왔으며 야구규칙을 설명하고 티볼 게임(티지볼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고 치고 달리는 게임)을 교사와 함께 했다.
청성초등학교는 방과후에 운동장에서 야구를 즐기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이같은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은 학생들에게 교육은 물론

티볼 장비 1세트와 야구공 2바스, 야구방망이 1개 등을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청성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야구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사로 초청된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은 "청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야구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야구장비 등 야구에 필요한 정보 및 장비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FTA 체결 대응방안 심포지엄

포천농업 비전 농업유통 구조 개선해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과 포천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포천 농업 비전 심포지엄'이 6월 19일 농촌지도자포천시연합회(회장 최지용) 주최로 환영절 포천시시장과 이강림 포천시의회위원장, 고조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1부에서는 '순차별법에서 배우는 우리농업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박재희 한국에술종합대학 교수로부터 특강이 있었으며 2부 행사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포천 농업 비전'을 주제로 한우를 비롯하여 포도, 농업유통, 농업구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좌장에는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가 맡았으며 김인필 경기북부한우협회장, 이환순 포도연구회장, 김현식 농업중앙회포천시지부 부부장, 김성남 포천시의회 의원이 패널로 나왔다.
김인필 좌장은 "포천지역 한우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이환순 회장은 "개방화에 대비한 포도산업 발전대책 제언"을 주제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과 포천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포천 농업 비전 심포지엄'이 6월 19일 농촌지도자포천시연합회(회장 최지용) 주최로 환영절 포천시시장과 이강림 포천시의회위원장, 고조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1부에서는 '순차별법에서 배우는 우리농업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박재희 한국에술종합대학 교수로부터 특강이 있었으며 2부 행사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포천 농업 비전'을 주제로 한우를 비롯하여 포도, 농업유통, 농업구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포지엄이 열렸다.

아파트 내부 수리 · 구조변경 전문업체



대복합성주식회사
대복 인테리어 하우스

저렴한 가격

정확한 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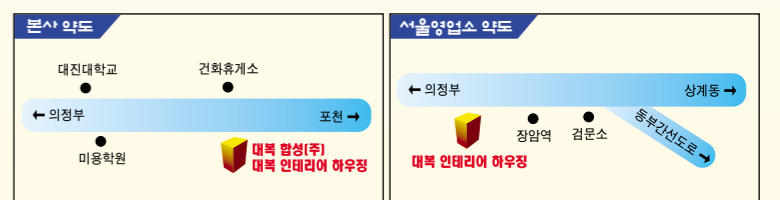
철저한 A/S

고객의 마음에 꼭 드는 시공



토탈 인테리어 · 마루 · 타일 · 무료 견적서

- 목공공사 ■도배 · 장판 ■화장실 공사
- 페인트 ■싱크대 · 신발장 · 창고문
- 샷시 공사 ■각종 카펫 ■인조잔디



대표이사 유병호
■본사 :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82-14
Tel. (031)542-8818, 8819 (031)542-6171 Fax. (031)542-8819
■서울영업소 : 의정부시 장안동 178-5
Tel. (031)871-2002 (031)876-5917, 6591 Fax. (031)871-4890